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3월 6일 월요일 (음 2월 7일)

제175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탄핵 선고 임박’ 북게 물든 광장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19차 범국민 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105만명이 참여했다. 사진은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찬 광화문 광장.

봄철 채소류 출하량 증가... 계란값 하락 인한 농축수산물 상승폭 하락...

장바구니 물가 안정세 돌입

배추·계란 등 소매가 내려... AI·구제역 확산 여부 따라 물가 등락 갈릴 듯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농축수산물 가격이 한 풀 꺾였다. 봄철 채소류가 출하되고 겨우내 지속됐던 가축전염병이 진정되면 장바구니 물가도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해 전월(2.0%)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품목 성질별로 전체 물가에 미치는 기여도를 보면 농축수산물이 0.35%포인트 인데 반해 공업제품은 0.77%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계란 가격 하락 등으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주요 품목의 소매가는 배추의 경우 포기 당 1월 4177원에서 2월

4006원, 무는 개당 2797원에서 2353원, 계란은 30개 들어 한 판 9096원에서 7932원으로 내렸다. 지출 비중과 구입 빈도가 높아 체감 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물가지수도 상승세가 둔화(2.4%→2.3%)됐다. 특히 50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의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1월 12.0%의 상승률을 나타냈던 신선식품지수는 2월 4.8%로 반토막 이상 떨어졌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진정과 전년 동월의 기저효과(채소류 가격상승) 등으로 농축수산물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설 이후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점도 물가 상승폭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육 두수 감소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국산 소고기는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했고 전월

과 비교하면 오히려 0.6% 하락했다"며 "설 이후 수요가 줄었고 최근 들어 (김영란법 등 여파로) 수요가 줄어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축산물 가격은 봄철 채소류 출하량 증가와 AI 및 구제역 진정세 등으로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년 전과 비교한 봄채소 재배면적 전망을 보면 배추는 16.0%, 무 3.0%, 당근은 10.8%씩 증가했다. 다만 AI와 구제역의 확산 여부에 따라 물가 향방은 갈릴 전망이다. 구제역은 지난달 13일 이후 의심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잠잠했던 AI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주춤하던 AI는 지난달 6일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야생조류 이동경로를 따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이 진행 중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 촛불 “박근혜 없는 봄을 맞고 싶다”

▶ 제16차 전북도민총결기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 “부역자들 물러날때까지 싸움은 계속돼야” 주장

탄핵 인용 기대감 커짐 따라 규탄연설보다 공연 위주로 진행 풍물패와 함께 한 시가행진도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제 16차 전북도민총결기가 지난 4일 오후 전주시 관동로사거리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집회에는 1,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또한,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황정수 무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안효영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전북도의회 의원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참가한 시민들의 손에는 ‘박근혜 없는 세상’ ‘안전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등이 적힌 형형색색의 피켓이 쥐어져 있었다. 표정은 밝아 보였다. “오늘 집회가 마지막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다. 연설자로 나선 김정훈(53) 전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민들의 외침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

을 위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또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역자들은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며 “그들이 물러날 때까지 싸움을 지속해야 한다”라고도 전했다. 이날 집회는 박 대통령 탄핵안이 곧 인용될 것이라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에 따라 시민들의 규탄연설보다는 다양한 공연 위주로 행사가 진행됐다. 발언과 공연은 전주시사회통역센터 고은희 수화통역사가 열정적인 몸짓으로 전했다. 첫 공연 순서로 나선 밴드 ‘노니과이’의 통기타와 피아노가 아우러진 흥겨운 공연으로 시작했다. 레크레이션 감사 한상준씨도 나섰다. 한씨는 전주의 이전 집회에서도 여러 번 레크레이션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이날은 합창그룹 ‘DJ DOC’의 히트곡들 중 하나인 ‘벚꽃’ 음악에 맞춰 시민들에 박수와 율동을 유도하며 집회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평화’라는 단어가 쓰여진 대형 풍선을 굴러보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한씨는 시민들을 향해 “그동안 추운데 고생하셨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건넸다. 이어 전주시립예술단의 공연도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유희가 넘치는 연극을 먼저 선보인 후 양희은의 상록수를 불렀다. 이때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들이 온갖 피켓을 들고 무대 앞으로 몰리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들이 든 무지개색 피켓에는 ‘박근혜 없는 세상’ ‘안전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등이 적혀 있었다. 앉아 있던 시민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화답해 주었다. 록밴드 ‘휴먼스’의 흥겨운 노래로 정점을 찍은 촛불집회는 오후 6시 40분 본 집회를 마치고, 정읍, 임실, 무주 등 전북지역 각지 남녀노소가 모인 풍물패 100여 명의 북, 풍물, 장구를 따른 시가행진으로 이어진 뒤, 오후 7시 40분께 풍남문광장에서 해산했다. 전북시국회의는 “오는 6일부터는 탄핵 인용시까지 매일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장소와 시간은 매일 오후 6시 관동로사거리다. 이들은 또 “탄핵안이 인용되면 축하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만명(이하 연인원 방식 주최 측 추산)으로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참여자가 연인원 1,500만명을 돌파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9차 집회가 열린 4일 오후 9시 언론에 보낸 자료를 통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95만명 등 전국 105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에 따르면 3·1절에 열린 18차까지 전체 촛불집회 참가자는 1450만명이다. 이에 따라 촛불집회 참여 시민은 19회 만에 연인원 1,500만 명을 돌파하게 됐다. /인재용 기자

3면 - 중국 사드 보복... 전북도, 관광객 유치 '비상' / 13면 - 전북현대, K리그 개막전 2-1 승리

모두가 가보고 싶은 **장수군**입니다.

장수물MALL JANGSU MALL NAVER 장수군청 검색